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루카 1, 80)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제 1 독서 이사야서 49,1~6

화답송 시편 139(138),1~3,13~14ㄱ~14ㄴ,14ㄷ~15 (◎ 14ㄱ)

◎ 오묘하게 지어 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1.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고 잘 아시나이다. 앉으나 서나 당신은 저를 아시고, 멀리서도 제 생각 알아차리시나이다.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헤아리시니, 당신은 저의 길 모두 아시나이다. ◎
2. 당신은 제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어미 배 속에서 저를 엮으셨나이다. 오묘하게 지어 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당신 작품들은 놀랍기만 하옵니다. ◎
3. 제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제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 땅속 깊은 곳에서 짜일 때, 제 뱃속까지 당신께 드러났나이다. ◎

제 2 독서 사도행전 13,22~26

복음환호송 루카 1,76

◎ 알렐루야.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 되어, 주님께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라. ◎

복음 루카 1,57~66,80

영성체송 루카 1,78

우리 하느님이 크신 자비를 베푸시니, 떠오르는 태양이 높은 데서 우리를 찾아오셨네.

6월 25일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담화문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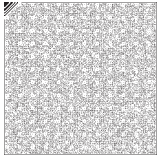
 **가톨릭부산** 주보 2500호 기념

신앙수기 모집

■ 접수 6.30(토) 17:00까지
■ e-mail 접수 jubo@catb.kr

* 주제 '가톨릭부산' 주보와 나의 신앙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www.catholicbusan.or.kr)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서 그분의 삶과 죽음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보여준 예언자요 선구자였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생활하며 낙타털옷을 입었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에 앞서서 하늘나라를 선포했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분 역시 의로운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의 선포와 죽음은 일상의 반복에 찌들고 욕망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내리치는 죽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요한 세례자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였습니다.

광야는 신앙인들에게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쳐야 했고,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뒤, 광야에서 악마의 유혹에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광야는 인간이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겉에 질린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탐욕과 대면해야 하는 곳이고, 그래서 유혹과 싸워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광야는 인간이 침묵과 고독 속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곳이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인간에게 말을 건네시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한편으로는 가장 밑바닥의 자기 얼굴을 보는 곳이지만, 다른 한편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를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앙인들은 광야를 잊고 살거나 광야로 나가기 두려워합니다. 아픔과 고통을 견디는 것을 마치 어리석은 것으로, 탐욕과 유혹에 맞서 싸우는 일을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침묵과 고독은 세상살이에 어울리

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한결음 물러나 광야로 가는 것은 시간낭비이거나, 세상에서 뒤처지는 일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를 만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학교입니다. 광야의 외침은 보기 싫은 내 얼굴과 마주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요청이지만 동시에 쇠신과 새로움으로 건너가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 세례자의 광야의 삶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그의 회개 촉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바로 그렇게 오늘 요한 세례자는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동 화

타라쿠스 신부
부산가톨릭신학원장 겸
신학대학 교수



“떡을 보낼게요.”
그녀의 가는 목소리가 공기 속에 가득합니다.
그녀가 보낸 떡 한 입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를 맡아봅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떡

글. 강은교 글라라 시인(송도성당)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 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6.25(월)~26(화)
이동화 신부(부산가톨릭신학원장
겸 신학대학 교수)

6.27(수)~30(토)
박상범 신부(안락성당 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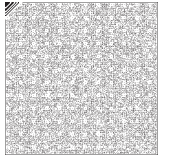
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진행 : 우지민 아나운서
6.27(수) 오늘의 가톨릭 뉴스
-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쉐련합 피정 및 미사
출연 : 임영천 헬레나 리포터

6.27(수) 본당 리포터
출연 : 원구룡 베드로 (태종대성당)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6.29(금) 12:15~14:00
진행 : 이재석 신부(밀양성당 주임)
우린 찬양사도 출연 : 하늘울림



요즘 소확행(小確幸)이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입니다. 갓 구운 빵을 먹을 때나 서랍에 잘 정리된 속옷을 볼 때 느끼는 행복처럼 일상에서 만나는 소소한 행복들을 말합니다. 때론 혼자 느끼는 작은 행복이 삶의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행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확실한 건 언젠가는 모두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존재의 근원에 관한 질문은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확실한 행복에 대한 질문도 결국은 이 근원적 질문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존재의 근원이 하느님으로부터 왔음을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세상에 와서, 하느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실 것임을

믿으며, 구원을 통해 마침내 하느님 품에 안길 것임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확실한 행복도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기분 좋은 날씨에 마음이 움직이는 일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초록에 지친 나뭇잎이 어느새 낙엽이 되고, 새벽의 여명이 노을을 지나 어둠이 내리는 광경이 그토록 아름다운 이유가, 또 아이의 천진한 웃음에 절로 미소를 짓게 되는 이유가, 단순히 나의 감각적 체험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느님의 질서를 따른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 또한 하느님의 선물이며 사는 동안의 고통조차 은총임을 깨닫는다면 여기저기에 감사할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소확행은 "하느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작은 것에서도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행복과 성공을 꿈꿉니다. 젊을 때 나는 내가 잘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지금은 딸들이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아들인 제가 잘 살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무엇이든 나를 내려다보시는 하느님께서 행복해하신다면 내 인생은 확실한 성공입니다. 나아가 하느님께서 주신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더 크게 퍼진다면 그건 대박 중의 대박 인생일 겁니다.



■ 탁 은 수 베드로

광안성당 • 언론인 fogtak@naver.com

환경과 생명 겸손과 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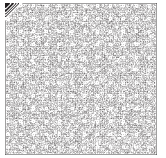
“다른 스포츠 물고기(sport fish)들의 주요 먹이가 되므로, 가치 있는 물고기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생태교란 외래종으로 박멸의 대상이 되는 블루길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발행한 어린이용 낚시 책자에 실린 글입니다. 민물고기도 바닷고기만큼 크게 자라는 미국에서야 블루길이 다른 큰 육식 물고기의 좋은 먹잇감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먹이 피라미드의 상층을 차지하며 큰 해악을 끼치면서 벌어지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반대로 이 블루길의 고향인 미시시피강 일대 양식장에 증식하는 해조류를 없애려 도입한 아시아잉어가 미국 고유종을 잡아먹으며 폭군이 되어 몸살을 앓고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로선 귀하고 맛있는 잉어가 미국인에게는 골치 아픈 위협적인 외래종일 뿐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자연생태계에 아무런 해악도 끼치지 않던 아프리카산 개구리가 농작

물의 해충구제를 위해 칠레로 유입되면서 해충뿐만 아니라 토착 곤충마저 다 잡아먹고, 급기야 비 내리는 밤이면 수천 마리의 이 개구리가 물을 찾아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 개구리 사체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날 지경에 이르면서 정부는 개구리 박멸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결국 이는 복잡하고 신비롭기까지 하며 거대한 지구의 생태 그물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당장에 필요한 인간의 욕망에 기대어 그 망을 끊어 이리저리 마구 섞어버리면서 벌어진 인위적인 생태파괴의 결과일 것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 도입한 해결책이 다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악순환은 결국 인간 이성의 한계에 기반한 겸손과 가장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뜻과 질서에 대한 순명을 통해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 우리농 본부(051-464-8495) woori-pusan@hanmail.net

본당 순례를 마치면서

- 내가 너희를 뽑았다. (요한 15,16) -



저는 지체장애 2급 중증장애인입니다. 1997년 9월, 군 전역 동기생 모임에 포항을 다녀오다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어 전동휠체어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에서 기획한 본당 순례를 시작하면서 ‘불편한 몸으로 과연 마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분들의 위로가 섞인 염려에 많이도 생각하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신 40일의 광야 생활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깨우치고자, 2월 13일, 본당 순례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본당 순례를 하며 교구 역사의 흐름과 변화, 초창기 교구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느끼고 보며 기쁨과 아쉬움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는 성당 계단을 오를 때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고통을 묵상했습니다. 어느 성당에서는 성전에

서 기도한 후 사무실 문이 잠겨있어 관리인에게 스탬프를 부탁드렸더니 억지부리지 말고 다음에 오라며 관리실 문을 닫아버릴 때는 참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신부님, 수녀님, 형제자매님의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친절한 안내에 눈물도 흘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 삼산성당 신부님께서서는 고생한다고 목주를 선물로 주셨고, 3월 4일 마지막 순례지인 무거성당에서는 수녀님께서 커피와 과자를 주시면서 따뜻하게 응원해주셨고, 그 덕에 순례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르 8,34)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아, 어서 오너라!”하시며 십자가에 매달려계신 예수님께서 저를 반겨주시는 것을 느낄 때는 제 몸 전체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죄인도 주님을 뵈고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아 진리를 배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주시니 마음은 더없이 풍요로워집니다. 이 이상 더 큰 특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당 순례는 제 생애 무엇보다도 값진 최고의 선물이었고, 이를 통해 제 영혼에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교구의 많은 신자들이 본당 순례를 통하여 가족과 친구와 함께 교구에 대한 애정과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시길 희망합니다.

2018 본당 순례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 김 규 인 요셉
이기대성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고통 자체를 즐기라는 것인가요?

고통은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오히려 즐기는 심리적인 병을 메조키스트라고 합니다. 메조키스트는 고통 그 자체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십자가는 고통 그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위하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불의의 사고로 전신불수가 되어 10년간 침대에서 누워만 있는 30대 젊은이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하느님은 왜 고통을 자신에게 주셨는지를 물었습니다. 사고로 자신의 꿈도 청춘도 다 잃고 자신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조그만 차창 밖의 작은 하늘 밖에 없는데, 이런

고통이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고통은 인류를 위해 자신을 바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고통을 감내 해 보시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말에 그 젊은이의 눈에 빛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미료법으로 유명한 유대계 심리학자 빅터프랭클은 인간은 ‘위하여’의 존재가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가치를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고통이더라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보다 높은 가치, 인류의 구원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 권순호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albkw93@hotmail.com

평신도 아카데미



평신도 희년을 맞아, 지난 6월 16일(토)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신학원이 공동주관한 평신도 아카데미가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

오.'(마태 20,4)라는 주제로 열렸다.

4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손삼석 주교의 기조강연(평신도 사도직의 일반적 이해)

을 시작으로 주제 발표(평신도 희년:정체성 회복을 통한 평신도의 해방을 향하여 - 김종훈 신부), 희년 살기 체험담 발표(이호창 다니엘, 맘미),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당 순례, 열기 후끈 - 본당 순례 1호 순례자 탄생

올해 교구 평협은 교구민 모두가 평신도 희년을 뜻 깊게 보내기 위한 일환 사업으로 '본당 순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운동이 시작되고 첫 번째로 교구 모든 본당 순례를 마친 신자가 나왔다. 지체장애인인 김규인 요셉(이기대성당) 씨는 한 달 여 만에 모든 본

당 순례를 마쳤으며, 현재는 본당 브레시디움 단원들의 순례 도우미를 자청하여 다시 순례에 임하고 있다.

또한 헬렌의 집(성프란치스코수녀회 운영) 가족 20여 명도 현재 30곳을 순례하던 중 지난 6월 15일(금) 교구청을 방문하여, 홍보전시실,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4편 열두광주리 참조



『본당 순례』 책자는 교구 내 본당 124곳, 성지 4곳, 교구청 총 129곳의 약사 및 특색, 교통편, 꼭 보아야 할 곳, 연락처 등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신자들이 이 책자에 따라 본당 순례를 실시하고 있다.

부산가톨릭문인협회, 주님사랑 글잔치



부산가톨릭문인협회(회장 : 배계선 브루노)와 교정사목(담당 : 원정학 신부)은 매년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주님사랑 글잔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6월 14일(목) 재소자들이 출품한 작품(운문 9편, 산문 14편)을 심사하여, 김해교도소에서 시상식을 열고, 재소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였다.

신선성당, 새 제대 축복식



신선성당(주임 : 김상효 신부, 회장 : 이성호 안토니오)은 약 3개월에 걸쳐 성전 제대를 새롭게 단장하여, 지난 6월 17일(일) 교중 미사 중에 1지구장 이성균 신부(중앙성당 주임)의 주례로 제대 축복식을 거행하였다.

본당의날 축하합니다!



6월 10일(일) 본당 주임 : 박용조 신부, 회장 : 안영복 안드레아



6월 10일(일) 마원성지 주임 : 김종엽 신부, 회장 : 왕수선 루비노



6월 10일(일) 나바위성지 / 주임 : 김흥민 신부, 회장 : 이학문 예로니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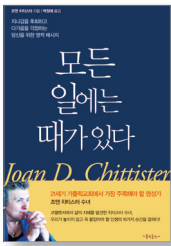
6월 10일(일) 남양성모성지 / 주임 : 오창일 신부, 회장 : 배경세 요한



7월의
도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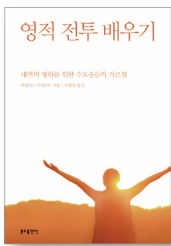
조앤 치티스터 지음 | 박정애 옮김
가톨릭출판사 | 12,000원



21세기 가톨릭교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영성가로 손꼽히는 조앤 치티스터 수녀가 코헬렛에서 찾은 인생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코헬렛이 말하는 인생의 16가지 순간을 통해 복잡해 보이는 삶을 명확하게 보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영적 전투 배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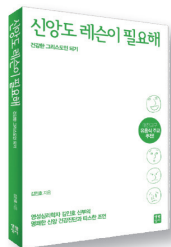
피델리스 루페르트 지음 | 이종한 옮김
분도출판사 | 15,000원



저자는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 요한 카시아누스와 같은 초기 수도승들과 이 전통을 이어 받은 베네딕도의 영적 전투법을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체험에 맞게 재해석하여 우리가 '영혼의 악습들', '부정적 각인들', '습관들'과 같은 내적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하는 '내적 정화 과정'을 통해 내면의 평화에 이르는 길로 안내합니다.

신앙도 레슨이 필요해

김인호 지음 | 생활성서사 | 14,000원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책을 통해 저자 김인호 신부는 상담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흔하게 품을 수 있는 고민과 궁급증을 풀어 주고, 알게 모르게 생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줌으로써 우리 모두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교 구

성소자를 위한 기도모임 월미사(울산)

· 6.29(금) 13:30(목주기도), 14:00(미사)
· 월평성당 / 문의: 629-8760~2(성소국)

7월 교구 혼인강좌 안내

[부산 지역] 7.8(일), 7.22(일) 15:00~18:50
예비부부와 기혼부부 모두 수강 가능
100% 인터넷 접수 / 선착순 50커플 / 당일접수 불가
문의: 462-1870, www.bccenter.or.kr(가톨릭센터)

부산가정성당 협력업체 모집

분야: 스냅사진, 영상촬영(DVD)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포트폴리오
접수: 7.6(금)까지 교구청 '사무처' 앞으로 우편
접수 / 문의: 629-8775 (면접일 개별통보)

부산가정성당 유급 지원팀 모집

상가대: 성악과 재학생 및 졸업생
오르간 반주: 음대 및 유경험자
제대회, 패백수모: 유경험자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접수: 7.6(금)까지 교구청 '사무처' 앞으로 우편
접수 / 문의: 629-8775 (면접일 개별통보)

본 당

모라성요한성당 은혜의 밤

· 6.27(수) 18:30 · 본당 / 강사: 강우현 신부(수정마
을성당 주임) - 강의, 미사, 안수 / 문의: 316-1009

대연성당 영어교실

기초반: 10:00~10:50 화/목반, 수/금반
중급반: 11:00~11:50 화/목반, 수/금반
회화반: 12:00~12:50 화/목반, 수/금반
· 7.1~8.31 / 2개월 3만원 / 문의: 010-8501-9250

기관·제 단체·위원회

노동사목 바자율미사(후원미사)

· 6.28(목) 19:00 · 가톨릭센터 경당
문의: 441-6403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08. 6. 25. 박문선(야고보) 신부님

가톨릭부산

카카오톡에서 소통해요!

- 1) '친구찾기 - ID/플러스친구 검색'에서 '가톨릭부산' 검색 후 친구 추가
- 2) '가입인사'를 꼭 남기셔야 주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영성의 집 후원회 미사
· 6.25(월) 11:00~15:10
- 수요 치유기도회
· 6.27(수) 10:00~16:00
버스: 안내카드 참조 / 점심 제공
- 교구 철야기도회(찬미의 밤)
· 6.29(금) 22:30~다음날 04:00
강사: 고영민 형제
- 젊은이 성령기도회
· 6.25(월) 19:30 전포성당
· 6.27(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청소년 기도회
· 6.24(일) 13:30 전포성당
- 29기 성령목상회 심화과정 1단계 5차
상담봉사자 교육
· 7.7(토) 15:30~8(일) 17:00
회비: 5만원(교재비 5,500원 별도)
미사, 필기, 세면도구 지급.

바로로아람터 후원회 미사

· 6.25(월) 10:30 · 바로로아람터
문의: 514-6988

소화영아재활원 후원회 미사

· 6.25(월) 13:30 · 소화영아재활원
문의: 644-1729, 0272

교구평협 시복시성기원 도보성지순례

· 6.30(토) 09:00(11:00 미사) / 개인 도시락 지참
· 삼랑진역 출발, 김범우도 순례
기차: 부산역 07:50 출발, 구포 08:04
개인 도시락 지참 / 문의: 622-5588(평협)

울산파티마의세계사도직 월미사 및 연합썰기도

· 7.3(화) 13:00 썰기도, 14:00 미사
· 복산성당 소성전 / 문의: 010-2428-5785

부산 미바회 후원회 미사

사제피정 관계로 6.22(금) 미사 있었습니다
문의: 010-9312-4228(회장)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본당 사무실,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신학원 카페(cafe.daum.net/catholic-sinhak) / 문의: 462-0334
(월~금, 14:00~17:00), logos1981@daum.net

혼인미사 예약 및 예식 안내

혼인미사 예약 접수: 9.2(일) 09시부터
혼인미사 예식 시작: 9.8(토) 11시부터

토, 일, 공휴일: 11시, 13시, 15시, 17시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목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
서울공예사
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야) 631-5006, 631-5007
황인환(가롤로)·김경자(모니카)

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래등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o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

(주)발해투어
1. 8/27 나가사키성지순례
카멜 4일 47만 9천원
2. 대마도 매일 12만 9천원~
3. 일본/히라도 매일
카멜 3박4일 19만 9천원~
항 프란치스코 010-8511-2442

CAS 전자저울, 로드셀, 계측기 AND
정원엠테크
전자저울, 로드셀, 토크셀, 인디케이터, 계량시스템
계측기, 중앙선별기 전문, 무상S/S지원, 교정검사
324-4800
www.castotal.co.kr
김 영 균(이나시오) 김 은 숙(요안나)

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

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간, 소화기병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험공단결진
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촬영)
· 소화기내과 원장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아),
허정호(루카), 조성락, 한서용, 이정현
· 진단방사선과 원장: 임성엽, 박상욱
554-1088/동래지하철역 1번 출구 맞은편

**하지정맥중점클리닉
길맥외과의원**
박우일(요셉), 박동욱(안드레아)
754-9975~6
센텀시티역 11,13번 출구 센텀임페리얼타워 15층

가인방문요양센터
국비지원(85%~100%)으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병덕(사도요한), 윤승진(보나)
010-7448-7858

건설현장의 꽃
조은 이동타워 크레인
독일 LIEBHERR. MK80.88.100.110. 등
MK80-마스타30M 짐42M엔드 1.7톤작업
MK100-마스타35M 짐52M엔드 1.6톤작업
MK110-마스타35M 짐52M엔드 1.8톤작업
장비임대. 현장담사(상담형)
1833-6368, 010-3831-2403
심 현 진 (프란치스코)

장기요양보험지정 뇌졸중·치매
재활전문 노인주간보호
활기찬 성모재활센터
주 만 규(스테파노)
639-1008
남구 자성로 148, 5층(문현동) 문현역 1번 출구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연합 쉼 대피정

· 6.25(월) 09:00~16:00 · 푸른군대 경당
강사 및 미사 주례 : 손삼석 주교
신청비 : 3천원 (점심 제공) / 문의 : 646-3746

음악교육원 3인 오르간 연주회(전공2급 본심)

· 7.8(일) 16:00 · 이기대성당 / 문의 : 517-8241,2
연주자 : 김주아, 황다연, 유희선 / 지도교수 : 최유정

가톨릭센터 사진교실 프로젝트반

<공소의 4계절을 사진에 옮기다>

개강 : 6.27(수) 19:00 최경현 사진갤러리(상상누리)
수강료 : 120만원(분납 가능) / 과정 : 1년 과정
내용 : 영남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연양성당의
공소를 둘러본다 / 문의 : 010-3873-0006
(가톨릭센터 사진교실 강사 최경현)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 7.11~11.28 매주 수요일 18:00~22:00
· 부산가톨릭대학교 로사리오관 502호
대상 : 사회적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자 20명
교육비 : 전액 무료 / 접수 : 7.2(월) 18:00 까지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cup.ac.kr) 공지사항
· 행사모집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busanse@naver.com) 제출 / 문의 : 510-0948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 463-7866

상담 :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내방상담 :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박사) 및 전문상담사

시각장애인선교회 상설고해소 운영

· 매주 화 15:00~17:00 / 문의 : 464-3909
· 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3층 성전(박성태 신부)

교육·모집·기사

들꽃마을 부산 영성 강의 및 미사

· 6.25(월) 14:00 / 문의 : (054)955-4133~4
· 부산종합사회복지관(망미성당 옆)
지도 : 최영배 신부(영성강의, 미사 주례)

영원한 도움의 성모 9일 기도와 미사

· 6.26(화) 14:00 · 서면성당
교리강의, 미사 전 후 고해성사
주례 : 구속주회 신부 / 문의 : 010-7132-6379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후원회 미사

· 6.30(토) 11:00(범일성당 입구 김안과 09:00 출발)
· 양산 무아의 집 / 문의 : 010-3355-4997

성바오로수도회 <말씀으로 마음치유>

· 9월부터 10주간 · 가톨릭센터 1층 성바오로 서원
월요일 오전 10:00~12:30, 목요일 저녁 19:00~21:30
대상 : 30대~60대 남, 여 / 문의 : 521-8898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8.6(월)~9(목) · 나가사키 순례
· 8.16(목)~24(금) · 이스라엘 순례
부산 출발 / 문의 : 010-3837-6434

투스프교교베네딕도회 베네딕도 살이피정

· 7.4(수)~8(일) 13:00 · 대구 수녀원
대상 : 수도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35세 이하 자매
문의 : 010-8519-3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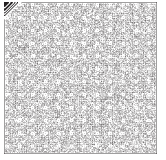
한티순교성지 피정

· 7.7(토) 16:00~8(일) 13:00
주제 : 한티가는길(순교영성)
강사 : 라마리아 수녀(한티순교성지)
문의 : (054)975-5151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국내 입양) 입양 상담 및 미혼모 상담
문의 : (02)764-4741~3, www.holyfcac.or.kr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가톨릭세실리아성음악협회 여름성음악연수

· 7.11(수)~14(토) · 가톨릭대성심교정
주제 : 새 로마미사경본에 따른 미사총지침 해설
과 미사전례성가
내용 : 그레고리오성가, 오르간, 지휘, 성악, 성
음악기초이론 및 작곡 - 전공과목 택일
교수 : 최호영 신부, 임석수 신부, 신기호 신부 외
연수비 : 40만원(우리 1002-044-623614 박재광)
문의 : 010-4513-7605, 010-6395-1181
홈페이지 : www.cecilkorea.org

전교가르멜수녀회 성소식별 피정

· 7.20(금) 19:00~22(일) 16:00
· 전교가르멜수녀원(인천 수련소)
대상 : 수도성소에 관심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식별하고자 하는 미혼여성 / 문의 : 010-6448-3191

양업고등학교 대안 좋은학교 연수

· 7.21(토)~22(일) · 양업고
대상 : 좋은학교에 관심있는 교사, 학부모
접수 : 학교 홈페이지, 7.11(수)부터 선착순
문의 : (043)260-5076

2018년 경주 여름 마리아폴리(포콜라레)

· 7.27(금) 14:00~30(일) 13:00
· 경주 코모도호텔(보문단지 내)
접수 : 7.2(월)부터 www.focolale.or.kr
문의 : (053)523-4822(마리아사협회)

예수고난회 하기학생피정

초등부 : 8.4(토) 16:00~5(일) 15:30
중고등부 : 8.7(화) 16:00~8(수) 15:30
· 광주 일곡동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준비물 : 세면도구, 실내용, 수건, 여벌옷
회비 : 4만원 / 문의 : (062)571-5004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7.1(일) 14:00	부산 분원	010-6271-4110
성골롬반외방선교회	7.1(일) 10:00	서울 돈암동 본부	02-924-3048
한국의방선교회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010-2730-8691

계간 『부산가톨릭문학』
신인문학상 작품 모집

■ 접수 마감 및 보낼 곳
기울호 : 7.10(화), 겨울호 : 10.10(수)
보낼 곳 : rose0624@hanmail.net(편집장 김새륙)
문의 : 010-9365-0370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litera.catb.kr)

인간존중·생명사랑 정신을 구현하는
부산가톨릭대학교 학과 안내 (1)
부산지역 사립대학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간호학과
www.cup.ac.kr

부산성모병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부산성모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1등급으로 평가받아
뇌졸중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표번호 : 933-7114
"부산성모병원은 강동으로 다가갑니다"

가톨릭센터 복음 문화 나눔
행복한 세상

가톨릭센터 문화공연 아름다운세상 74
카메라타 합창단과 함께하는 예수성심성월음악회
'르네상스와 바로크 성음악'
일시 **6.25(월) 19:30** 연양성당 성전 "무료입장"
프로그램 이해를 돕기 위해 연주전 해설이 18:30부터 진행됩니다.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요양보호사 실업자 국비지원 간병사 대모집(초보자 가능) : 병원/개인, 단체, 포괄간병 취업연계, 우수훈련강사진 818-1004, 245-1004 천사요양보호사교육원</p>	<p>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성모치과 원장. 송치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 출구 50m</p>	<p>동래로타리 독일보청기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 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p>	<p>갑상선·당뇨·고혈압·골다공증 김용기내과의원 [충무동 구. 김동수 내과] 원장. 김용기(T. 아쿠나스) 전 부산의대 학장 외 내과전문의 8명 상담 및 예약 245-7100</p>	<p>삼성내과 엠엘영상의학과 류마티스내과, 대장 내시경, MRI 내과 전문의 7명 : 박인호(루카), 한경문 최명락, 유관희, 남화성, 김윤지 서수홍(라파엘) 영상의학과 전문의 2명 : 박재영, 윤지영 산부인과 겸진 : 박정미 하단역 2번 출구 삼성메디칼 9~12층 208-5566</p>
<p>(주)온누리투어 3박 5일로 떠나는 성지순례길 매주 1회 부산 출발 북부 베트남(하롱베이 일정 포함) 남부 베트남(다낭 일정 포함) 캄보디아 프놈펜(양크로트 일정 포함) 853-1333, 010-4843-4020</p>	<p>동래광안 참사랑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아고보) 광안 : 751-1515 김명희(아네스)</p>	<p>미래고속관광 45인승/리무진 관광버스 22대 여름신앙학교, 결혼식 등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대표. 우종한(리차드) 055-333-6300, 010-3720-0303</p>	<p>(주)부산 리무진 장의차 각 본당의 연도회장님께 연락하시면 부산교구청과의 계약된 내용대로 할인 금액(약 3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수(미카엘) 418-4444</p>	<p>참병원 암환자중점케어, 호스피스 치료 의학박사. 정중수(미카엘) 714-0890 개금사거리 지하철 2번 출구 바로 앞</p>